

행복 이야기 HAPPY STORY



Hanmoory Presbyterian Church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

한무리 교회
담임 목사 박 상 돈 Rev. John S. Park, Pastor
(주일예배) 100 Christie Heights St., Leonia, NJ 07605
(수요예배) 62 W. Palisade Ave., Englewood, NJ 07631
(사무실) 405 E. Palisade Ave., Englewood, NJ 07631
Tel: 201-440-4588
www.hanmoory.org

목 차

시_ 민족복음화의 꿈
주일학교_ 영아부
은혜 나눔_ 교사대학 / 학부모 컨퍼런스/ VBS편지
EM STORY_ Hope in Jesus
사역 속으로_ 친교팀
새가족
책소개
중보기도_ 기도해 주세요
목장 이야기_ 후원 선교사님들 소개
한무리 News

V_{01.3}Mission

민족복음화의 꿈

- 김준곤 목사 -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찢어도 내 몸 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맺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각의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묻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계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으레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예수의식과 민족의식이 하나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행복 이야기 동권 3호 2012년 봄
 행복 이야기는 해외 한인장로회 뉴저지노회에 소속된 한무리교회의 소식지로 일년에 4번 발행됩니다.
 교인들간의 교제와 문서를 통한 복음전파를 목적으로하며 무료로 보급됩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hanmoorychurch@gmail.com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 책임: 박진수 - 취재 및 정리: 이수정, 이지원, 유정림, 조희창
 - 편집 디자인: 구나연 - 표지 그림: 안미경
 - 사진 촬영: 홍현진

[주일학교]

*영아부는 신생아부터 2세까지의 아기들이 모여있습니다.

마 21:16 “주님께서서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고 하였습니다. 영아부에서는 부모님들이 맘놓고 예배를 드릴수 있도록 아이들을 돌보아 드릴뿐 아니라, 영아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2204 호실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아이들은 제일먼저 출석 스티커를 붙이는 일을 합니다. 자유시간과 먹는 시간 그리고 예배시간을 구별하여 아이에게 진정한 예배를 가르치고 심어줍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생각하고 느끼며 동생에게 양보할 줄 알고 친구와 사이 좋게 지내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이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영아부의 표어는 **꿈꾸는아이 행복한가정 건강한교회** 입니다. 영아부의 목표는 어린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 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의 모습을 꿈을 꾸는 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도록 교사와 엄마가 함께 기도하며, 아이들이 믿음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행복한 가정이 모인 한무리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은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영아부의 자랑스런 20년을 섬기신 베테랑 이진권사님. 울던 아이도 권사님의 손에 오면 스스로 잠이듭니다.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시는 권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0년 이상 수고하신 구수연선생님과 구정연선생님. 친구처럼 대화하며 놀아주시는 박선영선생님. 든직한 이승일선생님, 엄마같은 김명순선생님, 영아부를 기쁨으로 섬겨주시는 자모회장 박명선성도님,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너무 잘웃는 담당교역자 이미숙전도사입니다. 곧 2명의 아기들이 올 예정인데, 아기들을 사랑하시는 선생님을 기다립니다. 아빠선생님도 대환영입니다.



[은혜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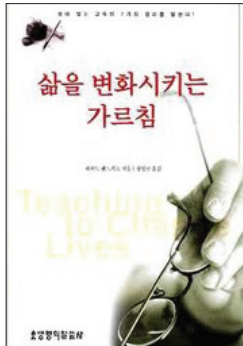
*2012년 교사대학이 3월 7일(수) 부터 10일(토) 까지 열렸습니다. 학생들과의 상담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교사대학에는 40여명의 교사들이 참여하여 뜨거운 열기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교사대학> 과정을 마치면서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 을 읽고서 - 귀안재매 (유년주일학교 교사)

이책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일곱가지 교육원리를 통해 이것이 열정과 함께 하나가 되었을때 나의 삶도 또한 변화시킬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능한 교사는 가르치고자 하는 것, 즉 가르칠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원리를 일깨워 주는 것을 떠나서 학생들에게 삶의영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끊임 없이 성장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 일은 그 가르침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가 아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에 먼저 힘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행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부족한 우리를 교사로 세우심으로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게 하시는 것이며 그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해줌으로 이세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닐까요.

*2012아동부 WINTER VBS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시간에 참여 후 감상을 시로 적어보았다고 합니다.

주님 좋은 엄마가 되길 - 박정화 사모님

주님...

엄마는 죄인인가 봅니다

아이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그 아이를 바라보는 눈길에 인색합니다

아이와 보내는 시간에 인색합니다

아이가 하는 말을 들어 주는데 인색합니다

아이의 마음을 알고자 하기보다

엄마의 마음을 알아달라 다그칩니다

그래서 엄마는 오늘 또 읍니다

아이가 다쳤을까 울고

아이가 용서해 주어서 읍니다

아이가 잘 자라가니 고마워 울고

아이가 사랑한다 말해 주어서 읍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걸 알기에

주께 감사해서 읍니다

부족한 이에게 엄마가 되라 하시며

아이와 함께 성숙해 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기다리심에 읍니다...

Tim Tebow (팀 티보) 뉴욕제츠행, 그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 오혁 형제(유년주일학교 교사)

조희창전도사님께서 새벽기도때 소개해 주신 적도 있는 미식축구리그 (NFL)의 팀 티보 선수가 뉴욕 제츠로 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티보는 1987년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시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자라났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대학교시절 최고의 쿼터백이라는 찬사를 들으며 미식축구 선수로 성장했고, University of Florida 시절에는 미국 대학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Heisman 트로피 수상 한번, 대학풋볼 내셔널 챔피언십 두번을 이루어내며 역대 최고의 대학선수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학풋볼과는 많이 다른 프로풋볼 시스템에 아직까지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끊임없는 노력, 이기고자하는 의지는 이미 리그 최고급이지만 공을 패스하는 게 주목적인 쿼터백으로서 패스의 정확성과 장거리 패스를 던질 만한 어깨힘 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지며 많은 비난을 받고있습니다.

매번 승리나 멋진 플레이를 성공시킨 후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티보, 항상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과과의 관계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 풋볼로 성공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티보, 수많은 사람들에게 멋진 롤모델이 되야만 하는 티보.

지난 시즌 동안 티보가 그의 신앙 간증에 너무 신경쓰는 게 안좋아 보인다고 반대하는 사람들과 그의 신앙으로 인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찬성하는 사람들로 엄청난 미디어 커버리지를 받았던 티보. 뉴욕에서 선수 생활하면 당연히 미디어 커버리지가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벌써 팀 동료중에는, 실력은 안되는데 팬들만 말도 안되게 많아서 우리팀 주전 쿼터백 마크 산체즈가 실수를 할때마다 티보를 주전으로 만들라고 소리칠 팬들때문에 팀 분위기가 산만해질 것 같다, 왜 이런 트레이드를 했는지 모르겠다, 마크 산체즈가 우리의 주전이다라며 티보를 반대하는 동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티보가 제츠에서 잘 적응하고 쿼터백으로써 Arm Strength와 Pass Accuracy가 발달되어서 리그 정상급 쿼터백으로 거듭나서 그의 믿음과 그의 헌신이 더욱더 널리 알려질 수 있게 기도해주세요.

"I think the greatest way to share the gospel is by acting it and by them seeing who you are as a person. That's how I approach it. It's not by what I say, it's more about how I act and who I am as a person. I think it is the greatest way you can have an impact on people's .Lives is your integrity, character and how you go about handling yourself."

말보다는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한 티보는 그동안 해왔던 말과 일관되게 자신의 자선 단체가 필리핀에 짓고 있는 병원과, 그 자선 단체를 통해 650명의 고아들을 후원하는게 풋볼 선수 티보로서 필드에서 하는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감동을 주었습니다.

[EPI STORY]

Hope in Jesus - 홍인표 형제 (Teddy Hong)

If I could ever imagine my life without a place to call home, if I could ever imagine not having a dollar to my name, if I could ever imagine my life without being surrounded by the people that love me - Where would I be? What would I be doing? How would I feel? I can't even begin to think about it, yet there are people out there that face this reality every day. However, I sincerely believe that God has put each of us in the right place, whether it's a place of hardship or a place of good grace. Although I can't explain why these people are in such a hard place, I know that God has placed me in a position of abundance so that I may be able to partake in a small part of God's wonderful will. So I believe with my whole heart that the work that we do for the homeless missions, whether on Easter Sunday or anytime we pass by a homeless person, is God's will to build up His kingdom.

So, on this Easter Sunday, we set out to do our best to build up His kingdom. We provided the homeless people with hot food for their nourishment, we sang jubilant praises to our risen Saviour, we shared the message of the Gospel that makes us all free and prayed with them for the Holy Spirit to do His works, we took part in fellowship and communion, and our kids shared the joy in their hearts through singing and dancing. Most importantly, we took this time to share our hope in Jesus with one another. Although they live in utter hopelessness every day, on this Easter Sunday, they were able to share their hope in Jesus with us and we were able to confirm our hope with them that Jesus Christ indeed rose above death to save us all and that our hope in Jesus is our victory over the world.



Easter Homeless Mission



찬양을 인도하는 홍인표 형제

[사역 속으로] 친교팀 취재 및 정리

*해피 스토리에서는 한무리교회 사역팀을 탐방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무리 교회를 위해, 한무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애쓰는 정성 어린 손길에 감사 드립니다! 이번 호에서는 주일 예배후 성도간의 성도간의 교제를 위해 애쓰는 손길, '친교부'를 만나봅니다.

질문 : 해피스토리 편집부

답변 : 김수미 집사/친교부장

Q: 친교부에서 애쓰시는 분들을 소개해 주세요.

A: 유미엽 권사님이 베이글을, 문혜옥 집사님은 빵을 준비해 주십니다. 신대현 집사님이 테이블을 세팅하시고 구본순 집사님은 각종 물품 정리와 재고정리를 해 주십니다. 배달이 안 되는 음식은 임선홍, 염윤자, 박명해, 김수미, 문혜옥 집사님이 픽업도 맡아주십니다. 주일 아침 1부 예배 전 커피 만들기, 2부 예배 시간에 점심 준비, 2부 예배 후 마무리와 설거지는 친교부 팀원 중 음식담당 열 명(당옥녀 권사 외 당병숙, 박명해, 이경순, 임선홍, 염윤자, 박혜영, 채신일, 문혜옥, 김수미 집사)이 돌아가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Q: 친교부 봉사하면서 가장 보람 있을 때는 언제일까요?

A: 남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의 매주 Restaurant Depot에 가서 트렁크 가득 차게 물품을 사오죠, 아침 점심 드시라고 차려드리고, 설거지하고.....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제게 시간, 건강, 지혜 등을 허락해 주셨으니 할 수 있지요. 처음 친교 부장을 맡았을 때는 친교 담당이 뱅뱅 비어 있는 주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채워 주시더라고요. 교회 일은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전 단지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Q: 친교부 봉사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드시고 난 후의 쓰레기나 남은 음식은 각자가 처리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친교를 맡아주시는 분께 감사 인사를 서로가 나누었으면 합니다. 또, 부엌 사용도 안 되고 해서 식사를 원하는 양만큼 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적은 양이라도 나누는 마음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철수팀이나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들은 시간에 늦는 경우가 많아 점심이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Q: 이 기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 친교팀원이 아무리 많고 열심히 봉사를 하려 해도 매주 친교 순서에 나서주신 분이 없으면 친교팀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쁨의 나눔과 대접의 손길 때문에 한무리 교회 성도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 최근 본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교우님들을 소개합니다. 2월과 4월사이에 등록하신 새 가족들은 총 16가정입니다.



김은정 /준현,서현:(밀알)인도 - 박명선,



박강록/박명선/준/민/유니(밀알) 인도-고의용



윤상원/양에스터/해빈(온두라스)



박대혁/안지영/해나(실로암) 인도 - 백지원



조문호/백지원/재영/예빈(실로암)인도-이성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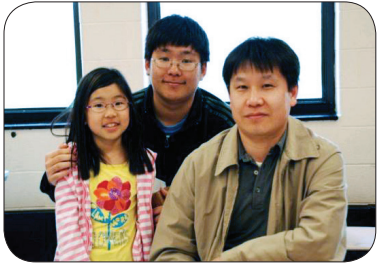
이명희/경정자/보경/윤호 (평양)



조경희(나이지리아)인도 - 김순옥



김난주/영서/영민 (인도)인도 - 채승연



안해진Peter/ Ashley (밀알)



백관용/선영/민영 (온두라스)인도 - 박상훈



강동우(평양)인도 - 박진수



박혁/박수연 /준형/준희(실로암) 인도 - 백지원



정동희 (평양)인도 - 이보라



이상운/황경혜B (열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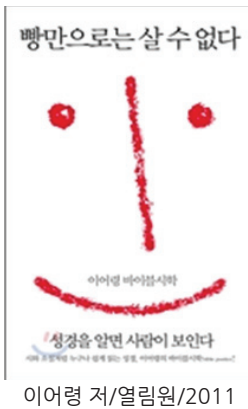
박신경/형진/윤진(시카고) 인도 -Kay Kim



심상인/예랑/ 예나(평양) 인도 - 황경혜

[책소개]

*행복이야기에서 추천하는 책을 읽으시고 6월 15일까지 감상문을 제출해 주시면 입상자에게 상품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이어령 저/열림원/2011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책이다”

2007년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고 기독교에 귀의한 이어령 초대 문화부장관이 텍스트로서의 성경읽기의 새로운 독법을 제시하는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를 출간했다. 문학을 가르친 교수로서, 그리고 기호학자로서 틈틈이 성경을 연구해, 성경도 얼마든지 문학작품처럼 쉽게 읽고 재미있게 음미할 수 있는 텍스트임을 증명해 보인다. 저자는 성경이 구사하고 있는 수사학에 유의하면서 철저하게 문학 텍스트와 같은 독서를 제안하고 있다. 그럴 경우 성경의 행간이 숨겨두고 있는 풍요로운 시학의 성찬이 열린다는 것이다. 또한 성경 속의 아이콘들이 함의하고 있는 문화적 상징과 이미지들을 자유자재로 분석하여 성경이 가진 종교적 위엄을 초월하여 문학작품처럼 감동과 재미를 갖춘 성대한 텍스트임을 보여준다.

“8가지 가정 원칙이 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

부모는 자녀의 삶에서 만나는 첫 번째 교사이자 인생 전체에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해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잘 배우되 지역적인 방법론이나 스킬보다 먼저 자녀 양육에 대한 원칙을 제대로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을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하게 키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5가지 사랑의 언어와 축복기도를 제시한다. 그리고 자녀에게 건강한 신앙을 물려주는 두 가지 방법으로 모범을 통한 교육과 즐거운 가족시간을 제시한다. 총 8가지의 가정 원칙은 크 리스천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 가운데 모범적인 길을 제시한다.



정정숙 저 | 카리스 / 2011



맥스 루케이도 저/최중훈 역 | 포이에마 / 2011

“스펙이랑 눈곱만큼도 없는 세상의 꼴치덩이들, 주님의 일꾼이 되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의 참뜻을 가르쳐주는 맥스 루케이도의 최신작 『세상이 외면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를 사용하신다』가 출간되었다. 뭐 하나 특출난 것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실까? 평범한 이들을 불러 일꾼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이 책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저자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한다. 성경을 알아가는 차원을 넘어 말씀대로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믿음 없고 두려움 많은 세대를 향한 가장 명확한 메시지가 독자들을 찾아갈 것이다.

[정보기도]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풍성한 한해가 되길바라며 다 함께 기도 해주세요!! *사순절 기간에 응답 받은 기도!

- 구본순 - 전도/ 영주권/ 자녀들의 장래위해
- 구윤희 - 남편이 가장 잘 맞는 일을 찾도록/아들 홍준이가 대학을 잘 선택하도록
- 권희분 - 집 문제 해결
- 김나연 - 건강(간,통증)/경제적 필요/영어공부/학교
- 노홍희 - 가족 건강(알러지,천식,어깨와 턱,혈압)/ 남편 시험/아버님의 대장암 완치 위해
- 박강록 - 온가족의 신앙생활/ 건강의 복을 위해/ 사업을 위해: 삶의 복을 주시도록
- 박미숙 - 사순절 예배 끝까지/계속적인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 박상돈 - 사론이의 대학 진학위해/신앙, 좋은 만남, 약대, 경제적 여건
- 박상훈 - 신분문제 해결/믿음 생활/자녀 갖도록
- 박익성 - 기도의 능력/장인어른의 척추뼈 완쾌 위해
- 박종호 - 김동규,손은정 세례받도록/어학원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도록
- 박진수 - 장인 장모님 구원/정동희 자매의 항암치료위해/목원들의 남편 전도
- 박현주 - 진행중인IVF 위해/사업터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하도록/건강
- 유정림 - 수현가족, 희진씨, 레이첼 가정, 박찬래, 황대원,현경가족 - 구원받도록
- 이명주 - 에나벨 전도/ 찬이 가정 전도/ Kay Kim 자매의 남편 교회 나오도록
- 이명희 - 가족 건강, 은혜 충만
- 이상만 - 이찬미의 진로 위해: 안정된 직장, 배우자 만남, 꾸준한 신앙생활
- 이상성 - 가게 매매/ 새 사업 위해
- 이진환 - 메소티스 목장위해/직장 위해/어머님과 장모님의 건강과 평안
- 정주영 - 영주권 신청/남편 구원
- 정진숙 - Samuel(김강현)과 남편이 올 해도 앨러지 잘 견디고 건강하도록
- 정혜영 - 언니 항암치료 위해/ 사업이 축복의 통로되도록/ 예수님 닮아가도록
- 조희창 - 한무리 다음세대의 부흥/장모님의 회복(암)/목회학 입학/선교단체 Fulltime사역
- 채승연 - 기도 생활/ 몸찬양팀을 위해: 공연이 아닌 예배, 선교되도록/ 남편의 믿음생활
- 최진우 - 말씀 충만한 가정/ 아이들의 지혜/ 건강/ 사업에 복 주시도록
- 황정혜B - 아버지 (황연복) 구원/ 자녀 위해

생명의 삶 2기 수강생들을 위해: 김태산, 백지원, 조희창, 박강록, 김신, 구경연, 임성근,박철형, 박현주, 홍인표, 김건희, 신지은, 최창대, 이진환, 채신일, 채승연, 김주희, 유세미, 이창우
허리 치유 위해: 최진우, 민태환, 김현, 정혜영



[목장이야기]

* 이번호에는 새롭게 편성된 목장과 선교사님들을 소개 합니다.

김제임스/김안젤라 인도 선교사님 (인도목장/히말라야목장 후원)



김제임스 선교사님은 뉴욕에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2002년도에 네팔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1년동안 신학교에서 강의한 후에 2003년도 부터 지금까지 인도와 구리 지역에서 아내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여 복음을 바탕으로한 교육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현지 신학교 강의와 의료선교, 나환자촌 방문 등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정명남/권정희 멕시코 선교사님 (아구아목장/멕시코목장 후원)

정명남 선교사는 현재 멕시코 중부 지역, 중남미에서 가장 복음화 되지 않은 지역 (복음주의 교인 2% 미만) 중 하나인 아구아스칼리엔테스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 섬기는 멕시코 현지인 교회 이름은 'Arbol Frondoso'(울창한 나무) 입니다. 1996년 총회(합동측) 파송 목사 선교사로 볼리비아 사역후 현재는 WEC 국제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아내 권정희 선교사와 두 아들(갈렘, 조셉)과 멕시코에서 7년 째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골든게이트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정혜림 니제르 선교사님 (나이제리아목장 후원)



정혜림 선교사님은 위클리프성경번역선교회에서 2008년 아프리카 니제르로 파송받아 선교사님 자녀들에게 수학과 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에게 영어회화도 가르치시고 고아원과 병원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옷과 음식물을 나누어 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2012-13 학기에는 스위스에서 1년동안 불어를 배우고 니제르로 돌아올 계획입니다.

권해택/김선미 뉴욕 선교사님 (뉴욕목장/캠퍼스목장 후원)

권해택선교사는 2005년에 대학생캠퍼스선교 단체인 ESF의 뉴욕책임간사로 파송되어 현재 7년째 섬기고 있으며, 현재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Biblical 신학교에서 M. Div 과정중에 있습니다. 뉴욕 ESF는 맨하탄을 중심으로 1.5세, 2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도및양육, 리더훈련, 해외단기선교 등의 사역을 이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정기적인 모임과 매월 마지막 주 연합예배, 그리고 일대일 제자양육 등을 통해 청년대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홍 귀훈 시카고 선교사님 (시카고목장/열방목장 후원)

한국에서 대학시절(1972년) 대학선교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대학 졸업후 서울에서 대학교사역자로 4년간 섬기다가 1983년 시카고에 이민왔습니다. 1988년 부터 일리노이 주립대에서 대학생들을 위한 복음사역을 시작 했으며, 1999년부터 시카고에서 다민족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다민족 사역을 통해 현재 30개 나라들에서 온 성도들을 제자 양육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들의 대학생들을 위한 선교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는 교사 출신인 아내와 뉴욕에서 직장에 다니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강성일 선교사 (브라질 목장후원)



강성일 선교사님은 장신대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 83년 예정 통합의 첫번째 선교사로 브라질에 파송되어 최근까지 북동부의 오지인 떼레지나 지역에서 교회와 신학교를 세워 현지인을 양성하다가 지금은 쌍파울로로 내려와 중남미선교전략연구소를 설립하여 중남미선교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아드님이신 강경찬목사님은 대를 이어 떼레지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박경균/이은영/하영/희영/지영 선교사님 (연변목장/평양목장 후원)

경기도 안양의 평촌교회 고등부, 대학부 회장으로 섬기다, 비전트립으로 연변과학기술대학을 알게 된 후 졸업과 동시에 그곳에 교원으로 가서 15년동안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갔으나 이듬해 아내와 결혼하여 함께 중국에서 가정을 일구고 세 딸을 중국 연길에서 낳았습니다. 연변과기대 컴퓨터 전자통신학부에서 교수 및 학과장으로 섬기며, 전산실 과장과 전산센터 실장을 겸직하였습니다.



뉴저지밀알선교단 (밀알목장/실로암목장 후원)



뉴저지밀알선교단(단장강원호목사)은 1994년에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장애인을 도우며, 장애인에 대해 바로 알리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우리교회에서는 2006년부터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사랑의 교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실은 4세 이상의 장애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가르쳐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레크레이션 등을 통하여 교육적, 사회적 발달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찬혁 온두라스 선교사님 (온두라스목장/메스티소목장 후원)

뉴욕에서 한 교회의 장로로 치과 의사로 오래동안 주님을 섬기다가, 3년 전에 치과 병원을 다른 분에게 넘기고 온두라스로 선교에 부르심을 받고 떠났습니다. 현재는 대학 안에 있는 De Andrew Clinic이란 치대에서 교수로서 사역을 하면서, 또한 원근 각처의 마을들을 다니며 치료와 전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무리 News]

*지난 분기 동안 한무리 교회의 행사 소식, 교우 동정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한무리 홈페이지 새단장, 한달 초대 활용자 시상



한무리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푸른하늘과 초원이 담긴 새로운 홈페이지는 새련되고, 따스한 모습과 내용으로 한무리가족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족들을 반갑게 맞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바뀐 모습이지만 기존 홈페이지 아이디어와 패스워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던 글도 모두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되어 편리함과 새로움을 모두 갖췄습니다. 홈페이지 새단장 기념으로 홈페이지를 가장 활발하게 활용한 분에게 수여하는 상은 '김나연 성도님'께 돌아갔습니다. 앞으로도 매월마다 홈페이지를 최대로 활용하신분에게 계속해서 시상이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많이 많이 홈페이지 활용해 주세요.

목사님 생신

3월 박상돈 목사님의 생신(3월 29일)을 맞아 주일 친교를 앞두고 목사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꽃다발과 카드, 케익으로 함께 축하하며 기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혜은 집사님의 딸 주희자매가 직접 홈메이드로 만든 생일케익은 모두에게 감탄사를 연발하게 만들어 생일의 기쁨을 더 했습니다.

부활절 맨하탄 홈리스 미션

부활절 오후 맨하탄에 한무리의 많은 가족들이 함께 '부활절 홈리스 미션'을 다녀왔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5시면 어김없이 진행되는 정기적인 홈리스 사역과 더불어 주요절기에는 더 크게 더 많은 교회가족들이 나가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 홈리스 미션에서는 홈리스분들과 함께한 예배시간에 설교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과 성찬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영접하러나오는 이들에게 함께 눈물과 기도로 축복하고, 평소예 성찬식에 참여하기 힘든 홈리스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지체됨을 의미하는 성찬식을 진행했습니다. 그 시간의 감동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예배 후에는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고, 아동부와 Youth Group의 율동과 찬양, 지회 자매의 특송으로 부활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행복한 성장의 기쁨' 새로운 삶 1기, 생명의 삶 2기 진행



2012년 봄을 시작하며, 마음에도 따스한 봄을 맞이하게 하는 성경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생명의 삶 1기를 수료한 수료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새로운 삶 1기'는 매주일 오후 1시20분에 친교실에서 진행되고 있고, 생명의 삶 2기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30분 비전하우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공부 가운데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계시고, 행복한 성장의 기쁨을 누리며, 그 감격을 나누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아 성경공부가 더욱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2개 성경공부를 매주 인도하시는 박상돈 목사님께 하나님이 체력도, 영력도 날마다 더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

4월 2일(월) 부터 7일(토)까지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특새)가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깊고 깊은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고 고난주간 특새에 많은 한무리 가족들이 참여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날 6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은 40명에게 이번에는 100% 순 참기름이 개근상으로 주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에 참기름이 주는 고소한 향기와 기쁨이 더해졌습니다. 참기름 위에 붙여진 '개근상'스티커와 상표에 있는 '100% 순'이라는 이름이 연결되어져서 '100% 순 개근상'으로 읽혀져서 보는이들을 웃음짓게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100% 순 믿음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겨울 VBS

처음으로 시도된 아동부 겨울 VBS가 2월 18일(토) 열렸습니다. 봄날씨 같은 따스한 날씨 가운데 신나게 찬양하고, 삶을 나누며, 즐겁게 뛰어놀고, Cooking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저녁에 부모님과 자녀가 편지를 쓴후 함께한 나눔시간과 기도시간은 함께 눈물 흘리며 치유와 감동, 하나님의 기쁨 부으심을 경험한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5-7월 교회행사일정

- 5월 6일 (주일) - 어린이주일, 아동부 달란트마켓
- 5월 13일 (주일) - 어버이 주일/한국요양원 방문
- 5월 27-28일(주일-월) - 목장장 수련회
- 6월 24일 주일 - 졸업축하예배
- 6월 22-24일 (금-주일) - 유치부 VBS
- 6월 24-27일 (주일-수) - 중고등부 수련회
- 6월 25-27일 (월-수) - 아동부 VBS
- 7월 26-28일 (목-토) - 밀알 사랑의 캠프